

벨기에 브뤼셀서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 전시

6 March, 2016 | 김정선 기자



하중현, Untitled 72 - c, The George Economou Collection. Photo © Jeremy Haik

국제갤러리는 벨기에 브뤼셀 소재 보고시안 재단의 빌라 영팡에서 '과정이 형태가 될 때: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이라는 제목의 특별전을 4월24일까지 협력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에도 보고시안 재단과 협력해 베니스 비엔날레 병행전시 중 하나로 단색화전을 진행한 국제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 주요 화단에서 지속적으로 단색화에 대한 관심을 주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열고 있는 전시에선 권영우, 김환기, 박서보, 이우환, 정상화, 정창섭, 하중현의 1970~80년대 작품 50여점이 소개된다.

국제갤러리는 단색화의 전개과정을 알리고자 전시장에 아카이브 공간을 만들어 단색화의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서적, 전시 도록과 포스터 등 관련 자료를 비치했다. 갤러리는 "같은 행위의 반복성과 정신적 추상세계를 보여주는 단색화는 한국의 정치, 사회적 현실을 경험한 작가들의 평면에 대한 고유한 추구를 기반으로 당시로선 전통적 그리기에 대한 파격의 접근과 미학적 담론을 발전시켜왔다"고 부연했다.

국제갤러리는 전시와 연계해 단색화 연혁, 평론 등이 담긴 서적을 영어, 프랑스어, 플랑드르어로 번역해 단색화 소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시 기획은 톨 펠라스, 샘 비더윌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해외 기획자들이 맡았다.

보고시안 재단은 아르메니아 출신 보석세공사 로버트 보고시안과 그의 두 아들이 1992년 설립한 비영리문화재단이다.

URL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6/0200000000AKR20160306016300005.HTML?input=1195m>